

DECEMBER 2021 VOL. 638

hyangjang



ALL ABOUT BEAUTY

당신을 더 아름답게 할 뷰티 노하우

PRODUCT 연말연시, 선물아이템

SPECIAL 시작부터 끝까지, 파티룩의 모든 것

MAKEUP PLAY 그래픽아이라인

AMOREPACIFIC

02 NEWS
12월의 가장 핫한 뉴스

06 NEWS-TREND
파티를 위한 아이 메이크업

08 MAKEUP
조명 아래 더 빛나는 메이크업

14 SPECIAL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파티 룩의 모든 것

24 PRODUCT
연말연시, 선물 아이템

30 MAKEUP PLAY
그래픽 아이라인

34 PRODUCT
설화수

36 PRODUCT
헤라

38 PRODUCT
헤라

40 ITEM
<향장> 스타프가 꼽은 최고의 제품

42 ICON
12월의 인테리어

46 PLACE
에스프레소 맛집

48 REVIEW
간간한 품평단의 꼼꼼 리뷰

50 ESSAY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정의

52 EDITOR'S PICK
12월의 강추템

SINCE 1958

<향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4년간 638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월간 뷰티 매거진입니다.



MAIL
HYANGJANG@MCKOREA.COM



WEB
WWW.APGROUP.COM



COPYRIGHT 2021
AMOREPACIFIC

(주)아모레퍼시픽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2021년 12월 1일
발행 통권 638호
발행인 서경배
편집인 안세홍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제품 문의 080-023-5454
제작 문의 방판컨텐츠&서비스팀
인쇄 (주)대신인쇄 02-853-6574
인쇄인 서명현
기획·편집 MCK Publishing Co., Ltd
에디터 최향진, 이성진, 이미경
디자인 www.pentagramgraphic.co

* <향장>은 WWW.APGROUP.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방문판매용 매거진입니다.




HYANGJANG JOURNAL

Glittering season : 빛나는 멋이 시대의 무게감과 계절의 스산함을 덜어줄 시즌, 화려하고 다채로운 디테일로 연말을 장식할 드레스 퍼레이드.

editor LEE MI KYUNG

팬데믹과 기후 위기 속에 치러진 이번 2021 F/W 패션위크는 단순히 트렌드로 정의하기 어렵다. 많은 컬렉션은 각자 자신만의 색깔을 강렬하게 드러냈고, 관통하는 트렌드도 찾기 어려운 가운데 더 세분화되고 개별적인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으니 말이다. 시대적 상황으로 불안과 우울, 가라앉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긍정과 희망은 꽃피게 마련이다. 편하고 실용적인 옷으로 트렌드를 구현하기 위해 고민하거나 팬데믹이 종료된 후 근사하게 차려입는 미래를 꿈꾸는 낙관주의가 그것이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누구나 호화롭고 자유롭던 시절이 그리운 것이 사실.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누구보다 화려한 옷 입고 파티를 즐기겠다는 이들이 수도룩하다. 이 때문일까, 쇼는 제한적이었지만 아이디어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풍성했다.

낙관주의에 몰입한 디자이너들은 1920년대 화려한 재즈 시대로 우리를 이끈다. 보브 컷트와 진주 목걸이, 허리선을 감춘 드레스 등 1920년대 플래퍼 룩에는 재즈의 흥과 아르데코의 예술미가 흐른다. 디올, 펜디, 조르지오 아르마니 등의 쇼에서 마주한 우아한 아름다움은 빛나는 프린지와 태피터 실크, 시퀸과 스팅글 등 반짝이는 글리터링 장식으로 극대화된다. 그런가 하면 어둡고 퇴폐적인 오라를 풍기는 컬렉션도 눈에 띈다. 시퀸 드레스를 입은 드리스 반 노트의 댄서들, 화려하지만 암울한 기운을 풍기는 드레스를 입은 생 로랑의 모델들은 창백하고 아름다운 뱀파이어를 연상하게 했다. 노골적이긴 해도 시어한 소재의 블랙 드레스는 불패의 아이콘이다. 핵심은 몸에 딱 달라붙는 슬림한 실루엣. 자크 뷔스나 발렌티노는 레이스 드레스로, 스포트맥스는 얇은 니트 드레스로 실루엣을 강조하기도 했다. 낭만적인 시퀸 드레스와 보디라인을 타고 흐르는 니트 드레스까지 룩은 조금씩 달라도 베이스 메이크업은 자연스럽고 촉촉하면 된다. 커버력도 과할 필요 없다. 그저 손끝으로 얇게 톡톡 발라 자신이 지닌 고유의 빛을 찾아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충분하다.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돋보이는 트렌드를 꼽을 수는 있지만 답은 자기 안에 있다. 걱정하지 말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를 즐길 시간이 올 테니 말이다. 





HAPPY 70TH ANNIVERSARY

1951년 아킬레 마라모티가 설립한 이후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막스마라. 이를 기념해 2021년 진보적인 시각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스토리를 전개하며 패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브랜드의 아이콘 아이템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1951 애니버서리' 컬렉션을 선보인다. 기능적 럭셔리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전설적인 캐멀 코트와 퓨어 캐시미어의 정수를 보여주는 카샤 컬러의 루드밀라 코트는 물론 잇 코트로 명성을 떨친 비쿠냐 컬러의 테디베어 코트 등 누구나 하나쯤 갖고 싶어하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에 1951을 상징하는 숫자를 장식했으며, 테크노 나일론 안감을 적용해 안팎으로 모두 착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문의 막스마라(kr.maxmara.com)

꿀잠을 위한 정교한 설계

글래드 호텔의 꿀잠 패키지는 편안하고 건강한 숙면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저알레르기성 베개, 메모리폼 베개 등 다양한 베개를 갖춰 이용객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미국 PCF사의 최고급 침구와 에이스 프리미엄 매트리스,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의 글래드 베스로브가 포근한 잠자리를 제공해 편안한 숙면을 돕는다. 여기에 더해 루이보스와 망고, 민트와 레몬 베베나를 블렌딩한 보태니컬 꿀잠 티를 마련해 휴양지 스파의 편안함과 여유도 느낄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글래드 호텔 서울과 제주에서 이용 가능하다.

문의 글래드 호텔(www.glad-hotels.com)



WINTER IS COMING

올겨울 스타일링의 포인트가 되어 줄 아우터를 찾고 있다면 글램과 시크 무드로 무장한 겨울 아우터로 돌아온 앤아더스토리즈의 리미티드 윈터 캡슐 컬렉션을 눈여겨볼 것. 글램을 상징하며 자신의 패션 스타일이 잘 드러나는 1970년대 클래식 스테이트먼트 피스에서 영감을 받은 헤비 오버코트, 폭신한 플러피 피 페이크 퍼 아우터, 시선을 사로잡는 트랙 수트를 새로운 퀄리티와 형태, 텍스처로 재해석해 선보인다. 이 밖에 내구성을 고려한 100% 울 소재의 페이크 퍼 아우터와 지속 가능한 나이나 셀룰로오스 섬유로 잔자카드 트랙 수트 등은 오랫동안 옷장 속 보물이 될 아우터로 손색 없다.

문의 앤아더스토리즈(www.stories.com)



끌로에와 문부츠의 만남

가브리엘라 허스트가 끌로에 하우스의 수장이 된 후 처음 선보이는 컬래버레이션 파트너로 패딩 부츠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문부츠를 선택했다. 끌로에와 문부츠의 DNA를 모두 담은 베이지 브라운 부츠는 끌로에 특유의 차분한 느낌에 등산화 본뜬 신발끈, 미묘한 문부츠 로고 등을 더한 디자인이 특징.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가브리엘라 허스트의 신념을 담아 생분해 가능한 밀착과 리사이클링 소재의 신발끈 등을 사용했다. 스타일리시한 패딩 부츠를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문의 끌로에(02-3479-6071)



공공장 대신 홈 엔터테인먼트

연말, 인파로 북적이는 극장이나 공연장 대신 집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몰입도 있게 즐기는 최상의 방법. 뱅앤올룹슨이 선보이는 베오랩 28이라면 가능하다. 베오랩 28은 혁신적인 음향 기술과 무선 연결 기능을 결합한 커넥티드 스테레오 스피커로 1250W의 강력한 사운드를 원하는 곳까지 도달하게 조절할 수 있고, 스피커가 놓인 방의 환경을 분석해 최상의 사운드를 구현한다. 제품 전원을 켜면 무대의 막이 열리듯 외부 커버가 젖혀지는데 블루투스, 와이파이, TV 등과 연결해 다양하고 간편하게 수준 높은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스피커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독창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도 만점이다.

문의 뱅앤올룹슨(02-518-1380)



새해를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

새해를 앞두고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새 다이어리 아닐까? 아날로그 감성으로 소중한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되짚어보기에 몰스킨의 다이어리가 제격이다. 몰스킨의 2020 다이어리는 시그니처인 엘라스틱 밴드를 커버와 동일한 컬러로 매치해 클래식한 디자인을 강조했고, 메모나 명함 등을 보관하기 편한 확장형 메모 포켓과 리본형 북마크 등으로 실용성을 높였다. 다양한 레이아웃과 사이즈, 커버 재질로 선택의 폭이 넓은 것도 장점. 테마에 따라 스티커와 스토리 카드 등의 구성품이 포함된 해리 포터와 피너츠, 어린 왕자 같은 애니메이션 테마의 한정판 다이어리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몰스킨(www.moleskine.co.kr)

파티 퀸을 위한 아이 메이크업

반짝이는 시머와 글리터, 혹은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이면 파티를 위한 준비는 충분하다.

photographer CHOI MIN YOUNG(제품)
editor LEE MI KYUNG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립 #305
카시스, 3.5g,
3만5천원.

모든 것이 그저 아름다워 보이는 연말, 모임이나 파티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다. 파티 메이크업의 핵심은 무엇보다 화려한 반짝임이 아닐까. 평범한 데일리 메이크업에 시머리한 컬러의 아이색도를 덧바르거나 필만 가미해도 순식간에 스타일이 달라지고 강렬한 오라가 생긴다. 메탈릭 컬러 아이색도를 선택한 프라다, 마크 패스트, 크리스찬 코완 쇼의 모델들이나 지안비토 로시 모델들처럼 과감하게 골드, 실버 또는 브론즈 계열의 메탈릭 컬러를 선택하면 연말 파티나 모임에 어울리는 세련되고 강렬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또 다른 패션 하우스들도 마치 올해 초부터 화려한 홀리데이를 준비한 것처럼 F/W 쇼에서 스톤과 시퀀을 메이크업에 활용한 모습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예로 코페르니와 쿠레쥬, 수언더커버의 모델들은 모두 눈 밑에 반짝이는 스톤을 붙인 채 런웨이를 활보했다. 버버리의 모델들은 얼굴 전체에 별자리를 마치 스티커처럼 붙이기도 했다. 평소라면 시도하기 부담스러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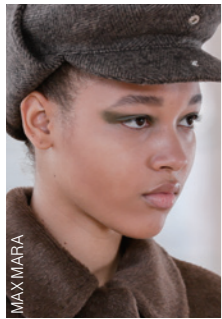


DIOR HAUTE COUTURE

DIOR HAUTE CO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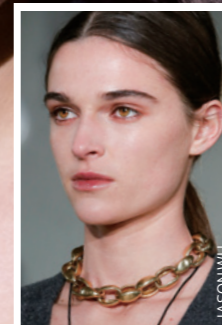
헤라
블랙 쿠션 SPF34/
PA++, 15g x 2,
6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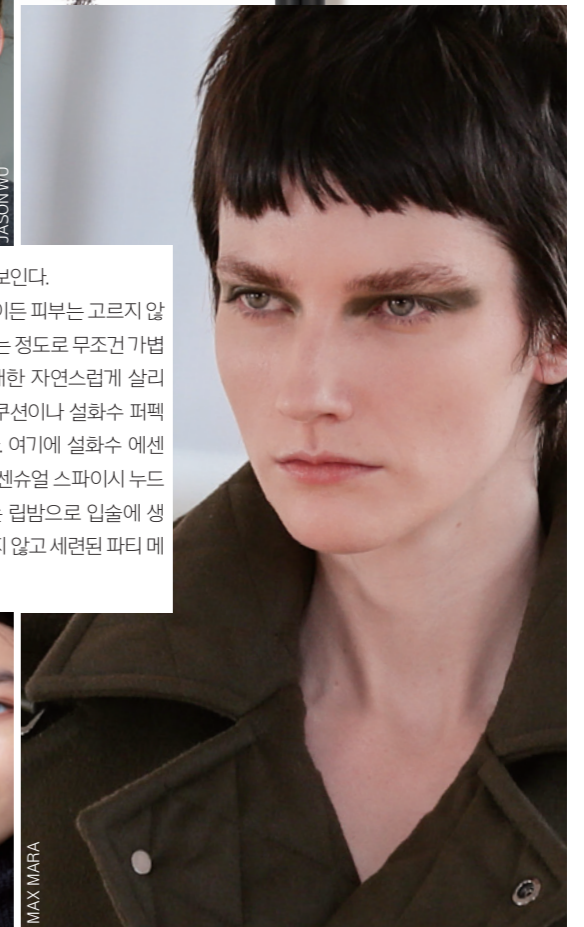
MAX M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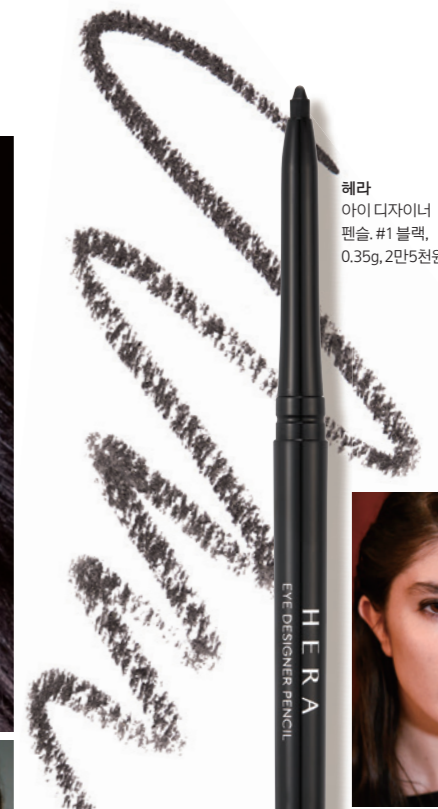
CORNE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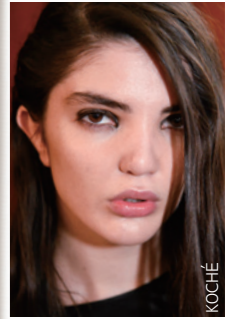
JASON WU



MAX MARA



헤라
아이 디자이너
펜슬 #1 블랙,
0.35g, 2만5천원.



KOCHÉ

있지만 연말 모임이나 파티에서는 오히려 주목 받을 만한 룩이다. 눈두덩이에 아이색도를 바르는 대신 크고 작은 스톤을 잔뜩 얹은 코페르니의 룩이 지나치게 화려해 보인다면 쿠레쥬의 모델들처럼 언더 아이라인에 빛나는 스톤을 몇 개 올리거나, 마크 패스트 쇼에서 연출한 것처럼 눈두덩이 전체에 아이색도를 바르고 아이라인 위쪽으로 스톤 3~4개 올려보라. 스톤이나 시퀀을 연출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스톤은 눈두덩이의 유분을 최대한 제거한 뒤 인조 속눈썹 글루로 고정하고 작은 시퀀이라면 바셀 린으로도 충분히 붙일 수 있다.

눈이 부어 보이는 편이라면 스톤이나 시퀀, 메탈릭 컬러가 다소 어색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디올과 펜디를 비롯해 끌로에, 알베르타 페레티, 샤넬 등 많은 컬렉션에 등장하는 모델들처럼 굵고 진한 아이라인으로 눈을 강조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비슷한 색 계열의 아이색도와 아이라이너를 적절히 섞어 스모키하면서도 입체적인 눈매를 연출하는 것. 아이 메이크업만으로도 인

상이 또렷하고 생기 있어 보인다. 시머리 아이드 스모키 아이드 피부는 고르지 않은 톤만 말끔하게 정돈하는 정도로 무조건 가볍게, 고유의 피부 빛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살리는 것이 관건. 헤라 블랙 쿠션이나 설화수 퍼펙팅 쿠션을 활용하면 된다. 여기에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 스틱이나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등 컬러감이 약간 있는 립밤으로 입술에 생기와 윤기를 더하면 과하지 않고 세련된 파티 메이크업이 완성된다. **10**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반짝이는 모든 것

본격적인 파티 시즌, 당신을 보석보다 빛나게 할 글리터 메이크업.

photographer · CHOI MOON HYUK

editor · CHOI HYANG JIN

PURPLE FEVER

퍼플 컬러가 돌아왔다. 진한 퍼플 컬러를 눈가에 발라도 좋지만, 파티의 특별한 분위기를 더하려면 하이라이터처럼 활용해볼 것. 헤라샤페도 듀오 #08 버블리의 퍼플 컬러를 눈두덩이 가운데에 가볍게 바르고, 눈썹 뼈에서 광대뼈 위쪽까지 연결되는 C존에 넓게 바른다. 컬러가 진하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소량으로 시작해 농도를 조절해야 실패가 없다. #08 버블리의 핑크 컬러를 뺨 앞쪽에 블러셔처럼 바르고, 입술에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422 린제리를 바르면 완성.



SO RED

레드 립은 파티 메이크업의 정석. 얼굴에 헤라 블랙 쿠션을 가볍게 발라 깨끗하고 은은한 윤기가 도는 피부를 연출한다. 눈에는 헤라 섀도 듀오 #06 라이커블의 핑크 빛을 컬러를 눈꼬리에 살짝 발라 가볍게 음영을 살리고, 입술에는 헤라 루즈 홀릭 매트 #311 솔리드 레드를 꼭 채워 바르면 광감하면서도 매혹적인 파티 룩이 완성된다.



GLASS SKIN

유리구슬처럼 투명하게 반짝이는 피부는 은은한 조명 아래서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이다. 얼굴에 헤라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얇게 펴 바른 뒤, 헤라 섀도 듀오 #09 플로렌스의 밝은 컬러를 광대뼈 위와 콧날, 윗입술 라인에 살짝 터치해 하이라이터로 활용한다. 입술에는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429 네이키드 아몬드를 바른 뒤, 헤라 센슈얼 프레쉬 립 오일 #002 노 네임을 덧발라 반짝이는 느낌을 극대화할 것.

SPARKILING EYES

1년 중 오직 지금, 파티시즌에만 시도할 수 있는 과감한 메이크업을 원한다면 반짝이는 파츠를 활용해보자. 헤라 색도 듀오 #11 원석을 눈두덩이와 언더 래쉬 라인에 발라 깊이 있는 눈매를 연출한 뒤 아이라인을 또렷하게 그린다. 마지막으로 모델처럼 언더 래쉬 라인 중앙에 파츠를 붙여볼 것.

MODEL: KIM JI YOON, MAKEUP: JARIE YOON,
LEE YOUN SUN (AMORE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드디어, 파티

오래 기다려왔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즐기는 연말 파티를! 더 행복하고 희망찬

내년을 기대하며 올해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게

도와줄 파티 노하우를 모았다.

photographer CHOI MOON HYUK(인물), JUNG JIN YOUNG(제품)

editor LEE SUNG JIN

Part.1 D-7

얼마나 기다려온 파티인데 대충 준비할 수는 없는 노릇. 당일이면 늦다. 파티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피부도, 의상도, 몸매도 미리 관리해두자.



#1

매끈하고 건강한 피부

물론 파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지만, 음식을 먹거나 샴페인을 마시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잠깐 동안에도 피부는 빛나야 한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깊은 팔자주름이나 메이크업이 엉망으로 들뜬 모습을 들리고 싶지 않다면 각질 제거에 만전을 기할 것. 하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인 제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 트러블이 되려 올라오거나 자극을 받아 더 거칠어질 수 있으니 자극없이 묵은 각질만 제거하고 필링 후에도 촉촉한 수분은 지켜주고 피부 장벽은 보호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질 제거와 함께 특화된 성분으로 피부의 탄력을 높여 깊어진 주름과 늘어진 모공을 조여줄 스펀셜 케어 제품을 꾸준히 쓰길 권한다. 목주름 완화에도 효과를 보이는 제품을 골라 쓰면 의상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



1 프리메라 페이스 마일드 필링 피부를 보호하는 필요한 각질은 그대로 두고 묵은 각질만 골라 제거하는 독특한 필링제. 피부와 유사한 보호막을 형성해 메이크업이 착붙는 촉촉한 피부로 가꿔준다. 150ml, 3만원.

2 아이오페 레티놀 포링클 0.3% 콜라겐 생성과 피부 탄도버스터를 촉진하는 레티놀을 역대급 고함량으로 넣어 단 2주 만에 깊은 주름과 눈에 띄는 모공, 목주름을 고루 완화해준다. 20ml, 13만원.



컬러풀한 옷은 친구와 함께 색이 눈에 확 띄어 사놓고도 용기가 없어 선볼리 입지 못한 옷이 있다면 이번 파티 때 꼭 도전해보자. 친구와 색을 맞춰 입으면 다들 보인다.

#2

파티복은 미리 준비할 것

파리와 밀라노 등 전 세계 거리를 수놓은 스트리트 패션에서 파티 패션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트렌드를 추렸다.



배꼽을 드러낼 것 다소 가혹한 트렌드이긴 하지만, 여성스러우면서도 섹시한 매력을 뽐내는 데에는 이만한 방법이 없으니 지금부터 관리에 돌입하자.

스틸레토 힐 대신 부츠 이번 시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슈즈는 부츠! 짧은 스커트에 롱부츠를 신으면 스틸레토 힐과는 또 다른 섹시미를 드러낸다.



#3

파티복의 완성은 몸매

2년 동안 차곡차곡 적립해온 군살과 이제 작별해야 할 때. 지금 바로 덤벨을 들고 운동을 시작하자. 직각 어깨를 위해서는 덤벨 오버헤드 프레스가 제격. 자리에 앉아 덤벨을 든 손이 하늘을 향해 직각이 되도록 팔꿈치를 굽힌 뒤 11자를 그리며 팔을 위로 쭉 폼다가 원래 자세로 되돌아오는 동작이다. 옆구리 살을 없애려면 사이드밴드가 좋다. 한 손에 덤벨을 쥐고 반대쪽은 팔꿈치를 굽혀 손을 귀에 댄 채 몸통을 덤벨을 왼 손 쪽으로 굽혔다가 처음 자세로 돌아오는 동작을 한쪽씩 번갈아 하면 된다. 힙업과 일명 영밀살 제거에는 스티프 데드리프트가 효과적이다. 덤벨을 들고 똑바로 선 뒤 허리와 등을 깨끗하게 편 채로 인사하듯 내려가고, 허리와 허벅지 뒤쪽의 힘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된다. 더 간편한 방법도 있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이너뷰티 제품을 챙기는 것. 하루 한 번 마시는 것만으로도 복부 지방을 포함한 군살을 고루 없애주는 제품이 파티 시즌의 구원자가 되어줄 것이다.

②



1 덤벨 덤벨로 하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일자 어깨, 잘록한 옆구리, 탄력 있는 엉덩이와 매끈한 허벅지를 가질 수 있다.

2 바이탈뷰티 슬리머DX 체지방 분해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배변 활동을 촉진해 군살을 없애고 체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25ml×30캡슐, 9만원.

Part.3 BEFORE PARTY

드디어 대망의 그날! 티 없이 맑고 건강한 윤기가 흐르는 피부, 과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헤어스타일, 개성 있는 파티 네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



#4

윤기가 흐르는 건강한 베이스

각질 제거제와 주름 완화 스킨케어로 매끈하고 팽팽한 피부가 준비됐다면, 그 위에 완벽한 베이스를 더할 시간. 파티 메이크업의 핵심은 조명을 받은 듯 건강한 윤기가 흐르는 피부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있다. 스킨케어를 마친 뒤 메이크업이 지워지거나 칙칙해지지 않도록 막아줄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길. 메이크업을 하고 난 뒤에도 코 주변이나 뺨이 붉어 피부가 얼룩덜룩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민트 컬러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면 붉은 기를 보정해 피부가 한결 깨끗해 보인다. 이후 잡티는 가리면서도 고급스러운 광채를 더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시간이 지나도 메이크업이 갈라지지 않게 해주는 쿠션 컴팩트를 바르면 든든한 메이크업 기초공사가 마무리된다.

1 헤라 매직스타터 #3 민트 조명을 받은 듯 투명한 광채를 더하고, 픽스 파우더로 메이크업이 지워지거나 건조하고 칙칙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붉은 기를 보정해 안색이 맑아 보인다. SPF25/PA++, 35ml, 4만7천원.
2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컴플렉스 쿠션 컴팩트 강력한 차나무꽃 에너지의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고, 워터 젤 트랩 기술로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시키며 리얼 다이아몬드 파우더와 글로우 코팅 파우더가 고급스러운 광채를 더한다. SPF50+/PA+++, 15gX2, 12만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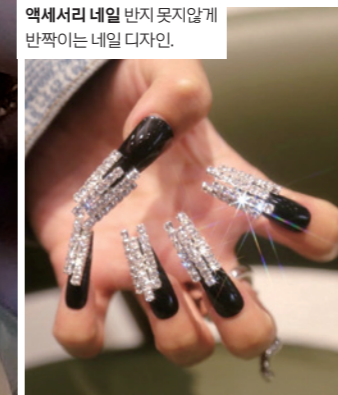
파우치 속에 넣어둘 시크릿 아이템

파티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다 문득 본 거울 속에서 번진 마스크라와 립스틱 때문에 호러 영화 속 주인공이 된 자신을 맞닥뜨린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신나게 노는 건 좋지만, 먹고 마시고 춤추다 보면 아무래도 화장이며 헤어스타일이 흐트러지기 마련. 그러므로 파티를 시작할 때의 말끔한 인상이 흐려지지 않게 막아줄 시크릿 아이템을 파우치 속에 챙겨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회용 가글은 치아를 깔끔하게 유지하고 입 냄새까지 없앨 수 있는 일식이조 아이템. 두피나 모발이 지성이라면 땀이 나서 지저분하게 딱진 부위를 보습보송하게 되돌려줄 드라이 샴푸가 필요하고, 평소 Y존이 예민한 데다 땀이 날 경우 냄새나 분비물이 더욱 심해진다면 민감한 부위를 상쾌하게 해줄 페미니 티슈도 넣어두는 것이 좋다.

#6

이 네일, 파티 생활 가능!

아주 작은 부위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감각을 뽐낼 수 있는 곳. 바로 네일이다. GD, 블랙핑크, CL 등 셀럽들이 사랑하는 네일 아티스트 유니스텔라 박은경 대표의 인스타그램(@nail_unistella)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과감한 디자인에 도전해보자. 팁을 미리 만들어뒀다가 파티장에서 붙이면 간편하게 변화를 줄 수 있고 기분 전환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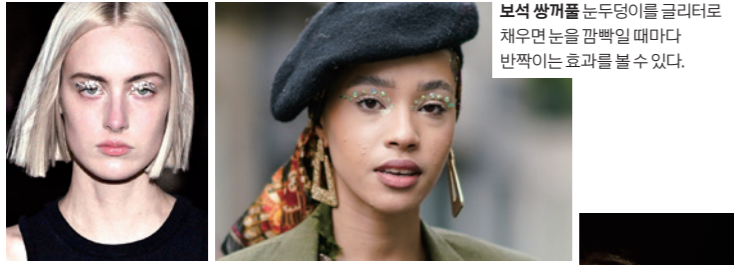


롱 네일 할리우드 셀럽들 사이에서 유행하다 이젠 국내 스타들에게도 사랑받는 디자인.

액세서리 네일 반지 못지않게 반짝이는 네일 디자인.

낙서 네일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

손가락 네일 손가락 전체를 꾸민 독특한 디자인.



보석 쌍꺼풀 눈두덩이를 글리터로 채우면 눈을 깜빡일 때마다 반짝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7

보석처럼 빛나는 얼굴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을 비장의 무기를 찾고 있다면 주목! 미세한 펄이 가득한 아이섀도나 광채가 자르르 흐르는 글리터를 준비했는데도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스스로 반짝이는 미러볼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보석을 더해 빛나는 메이크업은 F/W 시즌 백스테이지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을 만큼 트렌디하기도 하다. 준비물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네일 케어 소재를 파는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큐빅과 투명한 인조 속눈썹 풀만 있으면 끝. 글리터를 부착할 부위의 유분을 화장지나 클렌징 워터로 닦아낸 뒤 속눈썹 풀을 살짝 바른 글리터를 붙이면 완성된다. 시선이 글리터 쪽으로 집중되도록 다른 부위의 메이크업은 되도록 가볍고 내추럴하게 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붙이면 좋을지는 백스테이지의 모델들을 참고하자.



보석이 된 눈 주변에 거대한 파츠를 붙이면, 눈이 그 자체로 거대한 보석 같아 보인다.

보석이 내려앉은 머리 팔꿈치게 빛은 머리에 심플한 큐빅 헤어 장식을 꽂아 우아한 이미지를 더한 리타 오라.



여왕의 재림 마가렛 켈리는 하얀 드레스의 청순미를 강조하는 실버 머리띠로 순수하면서도 화려해 보이는 룩을 완성했다.



#9

헤어 액세서리의 힘

헤어 액세서리를 꺼내야 할 때. 레트로 트렌드에 힘입어 다양한 헤어 장식이 사랑받고 있으니 감각을 자랑하기에도 손색없다. 파티 룩의 정석이라 할 표본을 많이 볼 수 있는 멧 갈라(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코스튬 인스티튜트가 개최하는 자선 모금 행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보자.

바비 인형 지지 하디스처럼 높게 묶은 풍성한 헤어에 심플한 큐빅 핀을 더하면 인형 같은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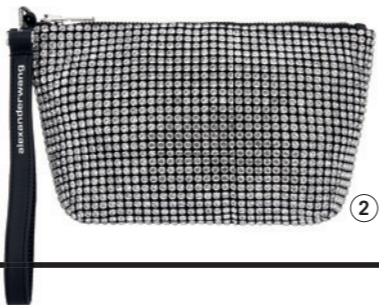


#8

액세서리는 나의 힘

파티 룩의 시작이 몸매라면, 그 끝은 액세서리가 아닐까. 다소 우울했던 지난 2년을 보상이라도 하듯, 기분 좋은 반짝임을 더해줄 액세서리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심플한 블랙 드레스나 네크라인이 깊게 파인 재킷, 화려한 퍼아우터 등 어디에 매치해도 아름답게 빛날 액세서리를 모았다.

- 1 타사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표현한 코멧 플러스 다이아몬드 파베 네크리스.
- 2 알렉산더 왕 앞과 뒤 전면에 크리스탈 라인스톤을 붙여 미려볼처럼 반짝이는 에레스 크리스탈 클러치 백.



Part.3 AFTER PARTY

아껴왔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한 당신.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력조차 없었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움직이자.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뜨고, 내일도 파티는 계속될 테니까.



MODEL: CHOIARA, MAKEUP: JAMIE YOON, LEE YOUN SUNJ(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PHOTOGRAPHY: WWW.GETTYIMAGEKOREA.COM

#10

파티 흔적, 말끔히 지우기

질은 메이크업과 파티장의 먼지, 그리고 마스크 속에서 엉겨 붙은 피지까지, 지금 피부는 그야말로 질식할 지경이다. 오늘의 즐거움이 내일의 슬픔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클렌징할 차례. 노폐물과 메이크업을 부드럽게 제거 해줄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막아줄 1차 클렌징과 잔여물을 말끔하게 씻어줄 2차 클렌징, 이렇게 두 단계로 클렌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티슈 타입 클렌저로 1차 세안을 하면 간편한데, 부드러운 원단으로 문질러 닦아도 자국이 없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는 피부를 맑고 개운하게 씻어줄 브라이트닝 클렌징 폼으로 세정하는 것이 좋다. 이중세안으로 피부가 깨끗해졌다면 수분으로 진정시킬 단계. 약해진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피부 속까지 수분을 채워 생기를 더해줄 제품을 도통히 바르고 자면 다음 날 건강한 피부로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 1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피토스테롤 성분이 피부 속으로부터 총총히 보습을 전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탄탄하고 생기 있게 관리해 주는 제품. 100ml, 5만9천원.
- 2 **프리메라 모이스처 클렌징 티슈** 울리브 오일과 알로에베라 추출물로 노폐물과 메이크업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주는 클렌징 티슈. 60매, 2만원.
- 3 **헤라 멜라솔브 프로그램 딥 클렌징 폼** 헤라의 브라이팅 성분인 멜라솔브™로 피부를 투명하게 가꾸고 셀룰로오스비드 성분이 들어 있어 각질 제거에도 효과를 보이는 제품. 세안 후에도 얼굴이 땅기지 않고 산뜻하다. 200g, 3만2천원.

#11

오늘의 부기는 오늘 뺄 것

마음껏 마시고 춤추고 나면 피곤에 젖어 온몸이 붓기 마련. 특히 아프고 저릿한 다리가 신경 쓰인다면 자기 전 다리의 긴장을 풀어줄 마사지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마사지 붕이나 맥주병 혹은 페트병만 있으면 된다. 먼저 반듯이 앉은 자세에서 한쪽 발을 세운 뒤 발목 부분에 밀대를 대고 위아래로 굴러준다. 그다음 무릎 뒤 마디 부분인 무릎 관절에 밀대를 대고 위아래로 굴린 다음 정면은 위에서 아래로, 측면은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며 지압한다. 마지막으로 발목 앞쪽과 뒤쪽에 밀대를 대고 굴리는데, 이때 근육을 누르지 않도록 힘을 빼야 한다. 누군가 마사지를 해줄 사람이 있다면 엎드리거나 누워서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평소 안전하게 자는 편이라면, 무게감이 있는 두툼한 이불을 발목 위에 올리고 잠드는 방법도 있다. 이불 무게 때문에 발등이 자연스럽게 펴져 저절로 발레 할 때의 포인 자세가 되는데, 이 자세를 한동안 유지하면 부기가 절로 빠진다.



이불 효과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불로 발등을 눌러주면 부기 해소에 도움이 된다.



#12

힐링의 마무리는 반신욕과 바디 크림

뭉친 근육을 충분히 풀고 싶다면 가볍게 반신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38°C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멍치까지만 몸을 담그고 20~30분 있다가 나오면 피로 해소에 큰 효과를 보인다. 반신욕이 끝났으면 바디 크림을 바르며 온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질 차례.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두드려 바르면 유·수분 밸런스 유지에 도움이 되고, 은은한 향이 감도는 제품이라면 숙면에도 효과적이다.

- 1 **바디스핀지** 반신욕을 하며 부드러운 스펀지로 마사지를 하면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 2 **헤라 벨벳 나이트 퍼퓸드 바디 로션** 은방울꽃, 사과, 베르가모트로 이뤄진 톤노트, 아이리스, 장미, 제스민이 어우러진 미들 노트, 머스크, 바닐라가 조화를 이룬 베이스 노트로 구성된 감각적인 향취의 바디 로션. 250ml, 5만원.



사랑하는 이들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소중한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연말연시 최고의 선물.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LEE MI KYUNG



설화수 순행클렌징오일. 400ml, 7만원.
설화수 순행클렌징폼. 400ml, 6만2천원.

#마일드한클렌징폼
#모공탄력클렌징오일
#당김없는촉촉함

설화수 순행클렌징오일 & 순행클렌징폼

외부 유해 환경에 자극받은 피부를 부드럽게 씻어낼 수 있는 촉촉한 저자극 클렌저. 워터 젤 타입의 순행클렌징폼은 풍성한 거품으로 순하고 편안하게 클렌징해주며 산뜻한 질감의 순행클렌징오일은 메이크업이나 노폐물은 물론 모공 속 미세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해준다. 순행클렌징오일로 1차 세정을 하고 순행클렌징폼으로 마무리하면 클렌징 효과가 배가되며 12월에는 400ml 대용량으로 만날 수 있어 더욱 실용적이다.

구딸 파리 로즈 폼폼
수천 개의 꽃잎으로 이루어진 프레시한 로즈의 향기를 매력적으로 담아낸 구딸 파리 대표 로즈 향수. 경쾌하고 당당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므로 사랑하는 여인에게 선물하기 좋다. 특 쓰는 핑크 페퍼와 상큼한 블랙 커런트, 달콤한 라즈베리가 부드러운 로즈 향과 조화를 이루며 마치 로제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는 듯 달콤하면서도 짜릿한 느낌을 선사한다.

구딸 파리 로즈 폼폼 오드 투왈렛. 50ml, 15만8천원.

#프루티플로럴
#파리지엔로즈
#로제샴페인향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크림, 50ml, 50만원.

#AbsoluTea™
#릭셔리초밀도피부
#시그니처크림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크림

탄탄한 보습막을 형성해 팽팽하고 화사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하는 크림으로 품격 있는 연말 선물을 찾는다면 눈여겨볼 만하다. 피부를 위한 독보적인 성분이자 장인 정신으로 탄생한 생명력의 정수 AbsoluTea™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보습 진정 효과를 발휘해 외부 유해 환경에 자극받은 피부를 개선해준다. 체온에 자연스럽게 녹는 제형으로 부드럽고 편안하게 피부를 감싸며 탄력을 더해준다.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컴플릿 쿠션 컴팩트 SPF50+/PA+++, 15g×2, 12만원.

#고보습안티에이징쿠션
#강력한차나무꽃에너지
#다이아몬드광채피부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컴플릿 쿠션 컴팩트

부드럽게 발리고 편안하게 밀착해 우아하게 빛나는 피부를 연출해주는 쿠션 컴팩트. 최고의 안티에이징 성분인 AbsoluTea™와 가을 다원에 피어나는 녹차꽃 추출물, 봄철 단 20일만 수확할 수 있는 잣잎에서 얻은 첫물 녹차수 등 귀한 그린티 원료를 고스란히 담았다. 입자가 미세한 다이아몬드 파우더와 글로우 코팅 파우더를 함유해 고급스럽게 빛나는 광채 피부를 표현해준다.

헤라 옴므 블랙 퍼펙트 스킨. 150ml, 5만5천원.
헤라 옴므 블랙 퍼펙트 로션. 150ml, 5만5천원.

#강력한안티에이징
#한층더건강한피부
#뛰어난보습유지력



헤라 옴므 블랙 퍼펙트 스킨 & 로션


남자 피부도 안티에이징 케어가 필수인 시대. 헤라 옴므의 블랙 퍼펙트 스킨과 로션은 땅속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귀한 블랙 트러플과 생명의 나무 열매로 통하는 아사이베리 추출물을 주원료로 한 핵심 성분인 블랙 퍼펙트 블렌딩™을 함유해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한다. 블랙 트러플 유래 효모 추출물이 피부를 맑게 개선하며, 아사이베리 추출물이 항산화 효과를 발휘해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활력과 생기를 채워준다.

헤라 옴므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스킨. 125ml, 4만2천원.
헤라 옴므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에멀전. 110ml, 3만8천원.

#데일리안티에이징
#피부에너지리부팅
#산뜻보송한마무리



헤라 옴므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스킨 & 에멀전

지치고 활기를 잃은 남성의 피부를 깨워줄 남성용 데일리 스킨케어 제품을 찾는다면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스킨과 에멀전이 제격. 에너지 드링크의 대표성분으로 알려진 타우린과 카페인도 피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타우린은 미세먼지에 의한 피부자극을 완화하고 장벽을 강화하며, 카페인도 피부 장벽을 보호하여 수분손실을 방지한다. 또한 케라티네이즈가 피부의 길을 열어주어 에센스 인 스킨과 에멀전 제품 모두에 적용된 유효성분인 펜타-파워 콤플렉스™ 성분이 피부에 깊숙히 침투하여 남성 피부의 5대고민을 해결해주는 스마트한 데일리 안티에이징 라인이다. 헤라만의 독자적인 기술인 피부보존제 ERP™까지 적용하여 한층 더 뛰어난 안티에이징 케어를 경험할수 있으며 스킨과 에멀전 모두 주름과 미백의 이중기능성 제품이다. 



그래픽 아이라인

과감한 스타일에 도전하고 싶은 파티 시즌. 특별한 아이 메이크업을 찾았다면 손쉽게 완성할 수 있는 그래픽 아이라인을 시도해볼 것.

LOOK 1. DOUBLE EYELINE

아이라인을 두 줄로 긋거나 속눈썹 라인이 아닌 아이홀 중간에 선을 긋는 더블 아이라인은 트렌디하고 도발적인 느낌을 주기에 딱! 눈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하므로 여러 차례 시도해 자신에게 맞는 패턴을 찾아보자.



STEP 1 헤라 색도 듀오 #02 이지고잉의 베이스 컬러를 눈두덩이에 얇게 펴 바른다. **STEP 2** 헤라 아이 디자이너 펜슬 #1 블랙으로 눈꼬리에서 시작해 눈썹 아래까지 부드러운 선을 그려 기준선을 잡는다. **STEP 3** 기준선 끝부분부터 아이홀을 따라 안쪽으로 아이라인을 그린다.



헤라 색도 듀오 #02 이지고잉, 4g, 3만8천원.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LOOK 2. CAT'S EYELINE

과감한 그래픽 아이라인이 부담스럽다면 아이라인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캐츠 아이라인부터 시작해보자.



STEP 1 헤라 아이 디자이너 펜슬 #1 블랙으로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우듯 아이라인을 그린다. **STEP 2** 눈꼬리부터 위쪽으로 원하는 길이만큼 가이드 라인을 그린다. **STEP 3** 눈동자 중간부터 가이드 라인 끝까지 아이라인을 여러 번 덧그리며 두께를 조절한다.



헤라 아이 디자이너 펜슬 #1 블랙, 0.35g, 2만5천원.



LOOK 3. WINGED EYE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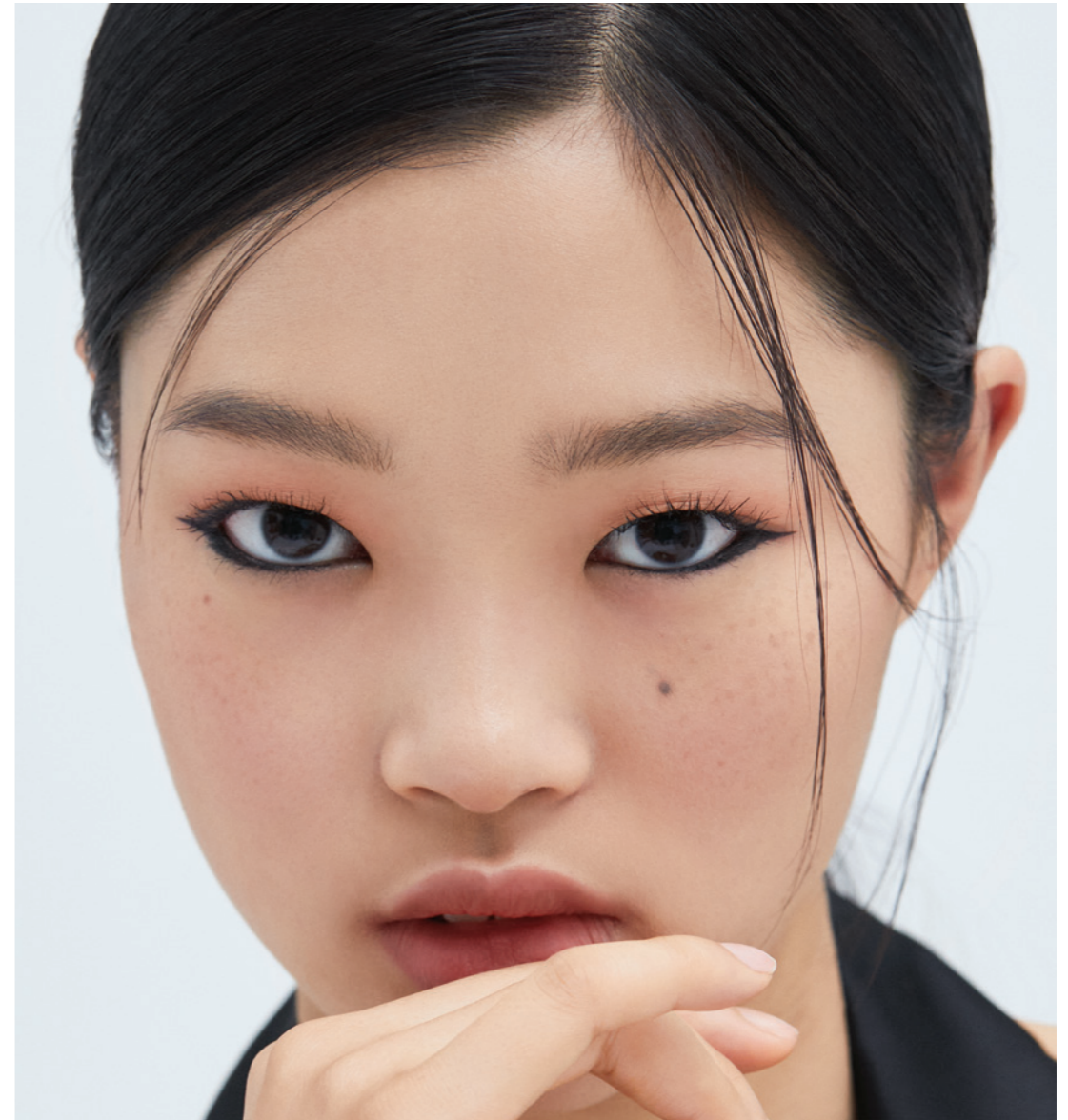
넓게 펼친 새의 날개처럼 도톰하고 시원한 곡선을 그리는 wing 아이라인은 캐츠 아이라인의 보다 과감한 버전. 속 쌍꺼풀이 지거나 작은 눈에 잘 어울리는 패턴이다.



STEP 1 헤라 아이 디자이너 펜슬 #1 블랙으로 눈꼬리부터 사선으로 가이드 라인을 그린다.
STEP 2 눈머리부터 가이드 라인 끝까지 원하는 두께로 가이드 라인을 그린다. **STEP 3** 라인 사이를 매우면 끝. 리퀴드나 젤 아이라이너를 이용해 도괄한 아이라인을 완성할 수 있다.



헤라 아이
 디자이너 펜슬.
 #1 블랙, 0.35g,
 2만5천원.



LOOK 4. UNDER EYELINE

눈이 처지거나 폭이 좁은 편이라면 언더 래쉬에 포인트를 준 아이라인을 추천한다. 도발적인 매력의 색다른 눈매를 연출할 수 있다.



STEP 1 헤라 색도 듀오 #04 피키의 베이스 컬러를 눈두덩이에 넓게 펴 바른 뒤, 헤라 아이 디자이너 펜슬 #1 블랙으로 언더 래쉬 점막에 얇게 선을 그린다. **STEP 2** 눈동자 아래부터 눈꼬리까지 점점 두꺼워지게 라인을 덧그린다. **STEP 3** 헤라 리치 컬링 mascara #79 래쉬 블랙을 속눈썹에 듬뿍 바른다.



헤라 색도 듀오.
 #04 피키, 4g,
 3만8천원.

MODEL: BAE YOON JI, MAKEUP: LEE YOUN SUN,
 HAIR: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자외선, 미세먼지 차단, 톤 업까지 한 번에

스킨케어의 마지막이자 메이크업의 시작인 자외선 차단제. 필수템임에도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면 설화수 상백크림이 해법이 되어줄 것이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설화수 상백크림

1

유해 환경 방어막

SPF50+/PA++++에 달하는 강력한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 생활 자외선과 강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강력한 방어막을 만들어 초미세먼지(PM2.5)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밀키 톤 업 제품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까지 갖췄다.

2

피부 진정 방어막

설화수 상백크림에는 상백피, 상삼자, 백삼다당체, 오매, 황금으로 구성된 상백단™이 들어 있어 자외선뿐 아니라 열 자극 등 각종 유해 환경에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가라앉혀준다.

3

브라이트닝 방어막

설화수 상백크림은 미백기능성으로 피부 밝기를 개선하고 바를수록 피부가 맑고 화사해지는 브라이트닝 효과를 볼 수 있다. 촉촉한 광채가 도는 피부를 원한다면 No.1 크리미 글로우를, 피부 톤 업을 원하고 블루라이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사람이라면 No.2 밀키 톤 업을 선택할 것.

추천 포인트

POINT 1

미세먼지 차단, 피부 진정, 브라이트닝까지 한 번에

POINT 2

피부가 숨 쉬는 듯 편안하고 가벼운 사용감

POINT 3

자연스러운 톤 업 효과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나 싶을 정도로 가볍고 피부가 편안해 이 제품만 찾게 된다.”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상은

“얼굴이 끈적이거나 답답하지 않고, 피부 톤 정리 효과까지 있어 코스모스에 애용하는 제품.”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피부에 쏙 흡수되어 파운데이션이나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는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이영

설화수 상백크림 SPF50+/PA++++, No.1 크리미 글로우 자외선을 비롯한 유해 환경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저자극 브라이트닝 선크림. 촉촉한 텍스처로 피부가 건조하거나 연약할 때, 광채를 연출하고 싶을 때 알맞다. 50ml, 8만5천원.

설화수 상백크림 SPF50+/PA++++, No.2 밀키 톤 업 피부가 화사하게 톤 업되는 동시에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가볍고 산뜻한 텍스처로 피지가 많은 지성 피부이거나 자외선 차단제 단계부터 톤 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 50ml, 8만5천원.

헤라 멜라솔브 프로그램
브라이트닝 크림
멜라솔브 2X™ 외에 판테놀을
함유해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
장벽을 다져주며 트러플에서
얻은 이스트 추출물이 피부
바탕을 맑게 개선해주는
크림. 피부과 테스트를 완료해
순하지만 효과적인 다크스팟
케어 가능하다. 50ml, 9만원.

헤라 멜라솔브 프로그램
브라이트닝 세럼
헤라만의 독자 성분인 멜라솔브
2X™가 멜라닌을 밀착 방어해
피부 본연의 빛을 깨우는
혁신적인 브라이트닝 세럼.
40ml, 10만원.

피부 속 본연의 빛을 깨워라

마스크위로 드러난 광대에 생긴 잡티, 가을볕에 칙칙해진 안색 등 피부 톤과 잡티 때문에
고민이라면 헤라 멜라솔브 프로그램 브라이트닝 세럼과 크림에 맡겨보길.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헤라 멜라솔브 프로그램 브라이트닝 세럼 & 크림

추천 포인트

POINT 1

강력한
브라이트닝 성분

POINT 2

극대화된
전달력

POINT 3

촉촉한
수분감

①

멜라닌을 토탈 케어하는 멜라솔브 2X™

대한민국 미백 화장품의 역사를 써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헤라의 기술력이 집약된 핵심 성분인 멜라솔브 2X™가 기미와 잡티뿐
아니라 다크닝 등 색소침착과 관련된 피부 속 프로세스에 작용해
깨끗하고 환한 피부로 개선해준다.

②

효능 성분의 전달력을 극대화

피부 속에 침투하기 전 쉽게 파괴되는 미백 성분을 안정화하기 위해 헤라는
유효 성분을 소프트 오일 캡슐로 안정화해 유효 성분의 전달력을 극대화했다.

③

풍부한 보습 효과의 수분 코팅막

헤라 멜라솔브 프로그램 브라이트닝 세럼과 크림은 기존
브라이트닝 화장품의 단점인 피부 건조와 자극 등을 해결하기 위해 풍부한
수분감을 더해 피부 보습을 돕고 바르자마자 수분 코팅막을
형성해 촉촉한 광채를 완성할 수 있다.

“이 제품을 꾸준히 바르니
광대 쪽 잡티가 확실히
덜어졌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미경

“피부가 건조해 브라이트닝 제품
사용을 꺼리는데, 이 제품은
촉촉해 걱정이 없다.”

-<마리끌레르> 뷰티에디터 김현민

“안색이 칙칙해져서 바르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피부 톤이
균일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도시 남자의 피부를 위한 휴식

각종 유해 환경과 스트레스, 과로 등을 견뎌야 하는 도시 남성의 피부는 지칠 대로 지쳐 있다.

헤라옴므 매니시모 인텐시브 스킨과 에멀전이 바쁜 일상에 쫓기는 남자들의 피부에 자그마한 휴식처가 되어줄 것이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헤라 옴므 매니시모 인텐시브 스킨 & 에멀전

①

유·수분 밸런스와 항산화력을 위한 나무 유래 성분

헤라 옴므 매니시모 인텐시브 스킨은 천연 보습 인자인 자작나무 수액을 함유해 피부 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 동시에 피부를 보호한다. 에멀전은 피톤치드가 풍부한 편백나무 추출물이 들어 있어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현상까지 막아준다.

②

도시 남자의 특별한 향기

리코리스 우드의 부드럽고 감각적인 향과 오드 우드의 파워풀한 노트가 어우러진 매니시모 라인만의 시그니처 향이 부담스럽지 않게 남성적인 여운을 남긴다.

③

촉촉하고 산뜻한 사용감

끈적이는 것을 싫어하는 남성들을 위한 제품답게 바르자마자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며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가벼운 텍스처가 압권이다. 특히 에멀전은 피지 분비가 많은 남성 피부를 고려해 영양은 부드럽게 흡수되면서도 번들거리지 않도록 고안했다.

추천 포인트

POINT 1

편백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작용

POINT 2

자작나무 수액의
수분 공급

POINT 3

매니시모 라인의 독특한
리코리스 우드향

“스킨과 에멀전 단 두 제품만으로도 피부가 확연히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트 디렉터 김경남

“피부가 지성인데도,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줘 오후가 되어도 얼굴이 번들거리지 않는다.”

-헤어 스타일리스트 박창대

“남성 화장품 특유의 부담스러운 향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향이라 마음에 든다.”

-포토그래퍼 박현진

헤라옴므 매니시모 인텐시브 스킨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하며 자작나무 수액 성분이 피부에 청량감과 풍부한 수분감을 선사한다. 100ml, 7만원.

헤라옴므 매니시모 인텐시브 에멀전 강력한 보습 작용을 하는 동시에 편백나무 추출물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로션. 100ml, 7만원.

내 맘속의 1등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매달 <향장>에 실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수많은 제품을 써본

에디터와 스태프들. 그들의 최애 제품은 무엇일까?

완벽한 화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

"화보의 콘셉트에 따라 촬영장에 가져가는 제품들이 다른데도, 변함 없이 꼭 챙기는 것이 바로 이 파운데이션이다. 매달 수차례 화보를 촬영하다 보니 파운데이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기운을 잃고 탄력이 떨어진 피부도, 각질이 나 요철이 심한 피부도, 모공이 넓은 피부도 모두 다 원래 좋은 피부처럼 보정해주니 항상 찾게 된다. 쉽게 지워지거나 건조해지지 않아 촬영 시간이 늘어나도 큰 걱정이 없다. 발랐을 때 피부가 편안하고 결정을 잘 숨겨줘 모델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
_by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프로페서 넬털 메이크업 아티스트 제이미윤

설화수 퍼펙팅 파운데이션 워터리 텍스처로 가볍게 발리고 피부의 결과 톤을 완벽하게 보정해주는 파운데이션. 설화수 고유의 스킨케어 성분을 함유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해준다. SPF17/PA+, 35ml, 7만원.

안티에이징 제품 쓰는 보람을 느끼게 해준 자음생에센스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느라 더 깊어진 팔자주름과 떨어진 피부 탄력을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안티에이징 에센스를 챙겨 바르는 중. 설화수의 자음생에센스는 6천 배로 고농축한 인삼의 에너지가 노화된 부위를 당기며 피부 전반에 탄탄한 기운을 채워준다. 끈적이지 않고 빠르게 스며들어 여름에 쓰기에 딱. 촉촉하기 때문에 건조한 겨울에 쓰기에 딱."
_by 에디터 최향진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6천 배 고농축 인삼 에너지를 담은 진세노믹스™가 피부 한 층 한 층 탄력을 더해 외부 자극에 흔들림 없는 탄탄한 피부로 가꿔준다. 50ml, 20만원.

건강한 피부의 숨겨진 비법

"아이를 낳은 뒤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곤 했다. 출산 후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일을 시작한 후에도 피부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보고 찾아낸 원인은 바로 헤라의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83 리포솜. 피부과 관리에서 착안하고 실제 에스테틱에서 사용하는 성분들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리포솜 속에 담았으니 전문가에게 관리받은 듯 피부가 팽팽하고 탄력 있어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_by 에디터 이미경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83 리포솜 BX 펩타이드, 인체 유사 리얼 콜라겐, 샬 EGF 등 효능 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해주는 리포솜 83% 고품량으로 피부 면에 골고루 빈틈없이 도포되어 팽팽한 탄력을 선사해주는 고기능성 에스테틱 세럼. 40ml, 12만원.

바를수록 화사해 보이는 신기한 쿠션

"아모레퍼시픽이 쿠션의 원조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향장>에서 소개하는 쿠션은 모두 만족스럽다. 설화수의 퍼펙팅 쿠션, 헤라의 블랙 쿠션 등 좋아하는 것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즐겨 쓰는 것은 헤라의 UV 미스트 쿠션! 매년 건조한 이맘때가 되면 메이크업이 들뜨고 얼굴이 망겼는데, 이 제품을 바르면 하루 종일 피부에서 건강한 윤기가 감돈다. 덧바를수록 텁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화사해 보이는 것이 신기해 '과연 미쿠!'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 예쁜 보라색 케이스도 내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다."
_by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프로페서 넬털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윤선

헤라 UV 미스트 쿠션 피부가 빛을 머금은 듯 고급스러운 윤기와 들뜨지 않는 밀착력, 한 번만 발라도 피부 톤, 주름, 다크 스팟, 모공까지 가려주는 강력한 커버력이 장점이다. SPF50+/PA+++, 15g×2, 6만원.

photographer LEE SUNG JIN
editor PARK JAE YONG

얇은 모발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구원자

"풍성하고 건강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내 모발은 아주 얇고 힘이 없는 편. 그렇다고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편은 아닌데, 환절기가 되거나 과로하면 유독 많이 빠지고 축 처져 신경 쓰일 때가 있다. 그때 누군가의 권유로 써본 제품이 다섯 가지 발효삼과 홍삼, 비오틴과 흡 등 탈모 방지 영양 성분을 가득 담은 러의 명품 HBX 앰플 샴푸. 놀랍게도 샴푸를 바르지 며칠 되지 않아 두피가 가려운 증상이 확연히 가라앉고, 모발이 빠지는 개수도 줄었다. 무엇보다 모발 뿌리에 힘이 생겨 볼륨이 살아난 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 점. 모발이 얇거나 탈모가 나타나 고민하고 있다면 꼭 써보기 바란다."

_by 헤어아티스트 이해영

러 명품 HBX 앰플 샴푸

두피 안티에이징과 두피 장벽 강화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성분을 함유한 샴푸로 마치 앰플을 바른 듯 눈에 띄는 탈모 완화 효과를 보인다. 또한 뿌리 볼륨 개선 특화 폴리머 성분으로 헤어스타일을 살려준다. 500ml, 3만3천원.

내 인생의 첫 장미 향수

"장미 향은 좋아해본 적 없고, 평생 좋아하지 않을 줄 알았다. 장미 향수가 새로 출시될 때마다 '이건 보통 장미 향수와 달라요'라는 말을 들곤 했지만, 막상 향을 맡아보면 비슷비슷한 장미 향에 실망하곤 했다. 진짜 남다른 장미 향수는 없을 거라 확신했다. 구말 파리의 로즈 품종을 만나기 전까지는. 로즈 품종을 뿌리자마자 퍼지는 향에서 느껴지는 청량감은 로제 샴페인을 마신 듯 환호했고, 그 뒤를 이어 전해지는 달콤한 장미 향이 얼마나 유혹적이던지. 평소 장미 향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장미 향수를 멀리하던 사람이라도 일단 한번 맡아볼 것. 지나치게 여성스럽지도, 그렇다고 너무나 유혹적이지 않은 완벽한 밸런스의 장미향 덕에 사랑스럽고 발랄한, 영화 속 귀여운 여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_by 에디터 이성진

구말 파리 로즈 품종 EDT

라즈베리, 블랙 커런트, 피오니, 샌들우드, 화이트 머스크와 장미 향을 함께 담은 프루티 플로럴 계열 향수. 장미로 가득한 침대에 파묻힌 듯 싱그럽다. 50ml, 15만8천원.

꾸준히 챙겨 먹는 유일한

이너뷰티 제품

"귀찮고 번거로우 남들 다 챙기는 영양제도 잘 먹지 않는 편인데, 촬영장에서 콜라겐을 꾸준히 먹은 뒤 피부가 확 달라졌다는 모델을 만난 후 이너뷰티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됐다. 많은 콜라겐 제품 중 내가 고른 것은 바이탈뷰티의 슈퍼콜라겐 골드. 알약 형태의 콜라겐은 삼키기 힘든 데다가 아무래도 흡수율이 떨어질 것 같아 앰플 형태의 제품을 찾았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았다는 엄마의 추천에 마음이 동했다. 무엇보다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 인정형 콜라겐을 함유했다는 말에 믿음이 생겼고, 액상형 저분자 콜라겐으로 흡수가 빠르다는 말에 바로 지갑을 열었다. 몇 달째 꾸준히 마셔보니 피부에 탄력이 붙고 건강한 윤기가 도는 기분. 촬영이 많거나 잠을 못 자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데, 그런 증상도 훨씬 덜하다."
_by 스타일리스트 박미경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골드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피부 기능성을 인정받은 AP콜라겐 효소분해 펩타이드가 주원료. 액상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피부결과 탄력, 건조를 고루 개선한다. 25ml×30앰플, 11만원.



음악이 흐르는 따뜻한 집

나무 바닥, 깔끔한 벽, 군더더기 없는 가구, 채도 낮은 소품과 곳곳에 놓인 오디오들.

부드러운 선율이 흐르는 권현옥의 공간은 늘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다.

photographer HAN DONG WON

editor LEE SUNG JIN



권현옥의 집에 들어서면 "아, 내 집처럼 편안하다"라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테리어 프로젝트들 역시 한결같이 편안하고 따뜻한 감성을 지니고 있다. 신기한 것은 생활의 흔적이 묻지 않은, 막 완성된 상태임에도 사람의 포근한 체온이 느껴진다는 것.

"집은 부모님의 품처럼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집에서만큼 좋아하는 일을 할 때처럼 한 없이 평온하길 바라며 작업합니다. 제가 디자인하는 곳이 세심한 배려 가득한, 감정이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신경 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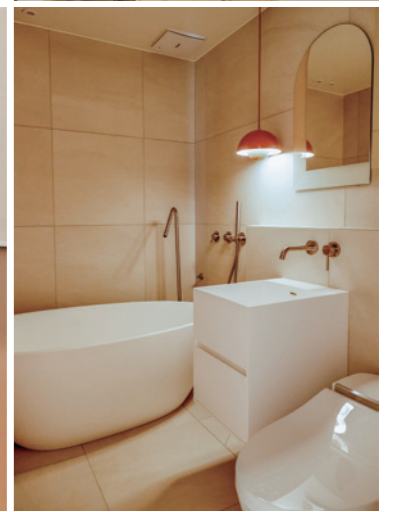
그때문일까, 그녀가 작업한 공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포인트에는 거주자에 대한 배려가 녹아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공간과 한 몸처럼 어우러지면서도 유용성을 잃지 않는 제작 가구들. 그녀는 사용자가 편리한 동선으로 공간에 더욱 애착을 갖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성 제품보다는 맞춤 가구를 선호한다. 공간의 완성도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하나의 전문 분야인 가구 디자인까지 섭렵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터. 값비싼 가구를 사서 놓는 것이 더 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웃으며 본인이 원래 가구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한다. 대학 재학 시절, 조명 디자인 수업의 과제로 가구와 조명을 접목한 디자인을 선보였고, 그걸로 수상한 전적도 있다고 한다. 그녀는 도면을 그리고 그 속을 채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라인을 이루는 가구가 공간과 어울릴지 떠올리게 된다. 물



@mayway_5
권현옥

대학에서 실내 디자인을, 대학원에서 공간 디자인을 전공한 뒤 상업 공간을 기획, 설계하다 인테리어 오웬을 설립한 지 8년째. 따뜻하고 편안한 주거 공간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론 기성 가구가 마감이나 디자인, 소재 등에서 더 완벽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빛나서 다른 요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크기가 맞지 않아 억지로 끼워 넣어야 할 때도 있어 맞춤 가구를 쓰게 됐다.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그 배려의 대상인 클라이언트도 번거롭긴 마찬가지다. 소장하고 있는 책이나 즐겨 쓰는 화장품 중 가장 큰 것의 크기, 혹은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편안한 높이 등을 직접 확인해서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공간을 완성하고 나면 어김없이 연락이 온다. 세심한 고려 덕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 무척 만족스럽다고 말이다. 디자인이나 디테일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공간과 완벽하





게 조화를 이루는 가구는 어느새 그녀의 특징이 되었고, 이전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가구는 어디서 살 수 있느냐, 맞춤 가구만 따로 팔 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들곤 한다.

그녀의 인테리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오디오다. 실제 그녀의 집에는 주방, 서재, 침실과 드레스룸 등에 총 7개에 달하는 오디오가 있다. 적재적소에 위치해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물론, 훌륭한 오브제가 되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오감이 충족되면 기분도 좋고 안락하잖아요. 어울리는 음악,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향, 아름다운 그림까지, 모든 것이 한데 어울려 한 공간을 완성한다고 생각해요. 평소 라디오를 틀어 놓고 작업하곤 하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울드팝을 듣다 보면 복잡한 머릿속이 정돈되고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오디오로 음악을 듣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제가 디자인하는 다른 공간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소리가 없는 물건도 돈을 지불하고 사는데, 오디오는 소리가 나고 예뻐기까지 하니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결코 크지 않은 금액으로도 외롭지 않게 해

주고, 생각할 때 도움을 주며,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자신의 집 거실에 돌 오디오를 찾던 그녀는 우연히 재야의 고수, TIS의 이정엽 대표를 만나게 된다. 빈티지 오디오 수집가로 음악에 조예가 깊은 그는 무수히 많은 오디오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판매는 하지 않는 진정한 오디오 마니아였다. 하지만 '음악으로 공간을 채운다'는 데 마음이 맞은 두 사람은 이제 프로젝트마다 함께 하는 훌륭한 파트너가 됐다. 실제로 꽤 많은 클라이언트가 두 사람이 추천하는 오디오를 자신의 공간에 들였고, 모두 매우 만족했다.

"원래도 따뜻한 디자인을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위주로 작업할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찾아오는 고객들은 대부분 그들이 원하는 인테리어처럼 성격도 부드러운우시거든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가운데 인간관계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을 만큼 힘들어하거나 급기야 일을 관두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단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어요." 심성 고운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고, 1인 기업을 운영하며 상담부터 디자인 기획 설계, 시공, 감리, 홈 스타일링까지 모두 본인이 직접 관여하

는 데다 작업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보니, 작업이 끝날 때쯤이면 그녀와 클라이언트는 의좋은 친구가 되곤 한다. 심지어 변화된 인테리어 덕분에 공간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되어 관련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한 고객도 있다. 사실, 이렇게 높은 만족도는 완벽한 공간에 대한 그녀의 욕심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처음 '인테리어 오월'을 시작할 때부터 단순 시공으로 끝내는 법이 없었다. 도배만 할 때도 '침대를 화이트 컬러로 칠하는 것은 어떨까', '냉장고는 이렇게 두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다'는 등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공간과 어울려져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제안해왔다고 한다. 심지어 쓰레기통을 돌 위치까지 도면을 그릴 때부터 생각해두고, 커피머신은 물론 수저까지 추천한 적도 있다. 이런 별난 성격 덕분에 고객들이 믿음은 더욱 두터워졌고, 그녀를 찾는 이들은 더 늘어나고 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평온한 공간. 처음 만나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자리임에도 오래된 친구와 수다를 떠는 듯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은 다 그녀의 환한 미소와 배려가 깃든 공간, 그리고 그 속을 채우던 부드러운 음악 덕분이었



TIP

권현옥 대표가 말하는 편안한 공간 연출법

1. 채도 낮은 색감을 활용할 것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채도 낮은 컬러를 활용하면 눈이 피로하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벽이나 바닥은 물론 소품도 마찬가지. 환한 공간에 짙은 색 소품을 놓으면, 어딘가에 반드시 그 사이의 중간색을 두어 색의 격차를 완만하게 하는 것이 좋다.

2. 조명을 적절히 활용할 것

잘 고른 조명은 낮에는 디자인 요소가 되고 밤에는 차분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세련된 디자인이되

선이 부드러운 것이 바람직하다. 자칫 공간이 밋밋하게 느껴진다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컬러의 그림을 걸어보자. 그림도, 공간도 산다.

3. 취향에 맞는 오디오를 구비할 것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라디오를 들으면 공간에 감정이 더해진다. 꼭 비싼 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렴한 빈티지 오디오도 충분히 멋스럽기 때문이다. 벽 너머에서 음악을 들으면 집중되지 않고 음악과 소통할 수 없으므로 여유가 된다면 공간마다 오디오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에스프레소의 신세계

새로운 커피의 시대를 열어갈 에스프레소 바에 다녀왔다.

photographer LEE SEOK YEONG
editor LIM SU AH



몰또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바

명동성당을 바라보며 에스프레소와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이국적인 공간. '몰또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바' 탁 트인 테라스를 마련해 정면으로는 명동성당을, 오른쪽으로는 N서울타워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전망을 갖췄다. '카페 에스프레소', '카페 마키아토', '카페 누텔라' 등의 에스프레소 메뉴를 선보이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열두 종류의 브루스케타와 디저트로 곁들일 수 있는 세 가지 칸논치니를 판다. 브루스케타와 칸논치니는 수입한 식재료로 요리해 이탈리아 현지인의 맛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선선한 바람이 스치는 가을, 명동성당을 바라보며 에스프레소와 함께 다양한 메뉴를 맛보는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길 권한다.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3층
영업시간 월~토요일 09:00~21:00, 일요일 휴업
문의 02-778-7779



카페 살레와 토마토 바질 브루스케타
에스프레소에 크림을 올린 뒤 소금을 뿌린 '카페 살레' 토마토, 바질, 올리브오일이 어우러지는 '토마토 바질 브루스케타'가 인기 메뉴.



구테로이테

'좋은 사람들'이라는 뜻의 독일어, '구테로이테(gute leute)'는 좋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서울을 표현한 커피 바다. 시멘트, 철, 유리 등 차가운 건축 재를 이용하는 동시에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의 테이블을 두어 상반된 매력을 지닌 서울의 분위기를 구현했다. 커피잔 테두리에 레몬으로 리밍을 하고 설탕을 넣은 뒤 발로나 파우더를 얹어 레몬 사탕 느낌이 나는 '파인콘'을 비롯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커피 한 잔에도 다채로운 맛을 담아내 디저트를 즐기는 듯한 느낌이 든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31길 16
영업시간 매일 08:00~22:00 문의 02-518-1117



구테로이테
에스프레소에 달콤한 크림을 올리고 로투스 크림볼을 얹었다. 쿠키 크림볼의 거친 식감과 부드럽고 달콤한 커피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에스프레소 콤보
에그타르트 한개와 에스프레소 한잔 그리고 입가심을 위한 탄산수까지 3천5백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다.



쏘리 에스프레소 바

서촌 속 작은 포르투갈로 통하는 '쏘리 에스프레소 바'는 포르투갈의 국민 커피 '델타 커피'와 에그타르트를 선보이는 스탠딩 에스프레소 바다. 델타 커피는 쓰지 않고 부드러운 에스프레소를 처음 마시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 포르투갈에서 직접 공수한 에그타르트는 바삭한 페이스트리와 부드러운 달걀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달콤한 풍미를 전한다. 현지의 맛과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포르투갈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2길 12 1층
영업시간 월~금요일 08:00~10:30, 12:00~18:30,
토요일 11:00~18:30 문의 @sorry_espressobar

무슈부부 커피스탠드

망원동의 조용한 골목길에 빈티지한 간판이 눈에 띄는 '무슈부부 커피스탠드'가 있다. 짙은 색 벽돌과 오래된 원목 가구, 스케이팅보드와 빈티지 소품 등 세월의 흔적을 지닌 물건들이 편안함을 안겨주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에스프레소에 설탕과 레몬 한 조각을 넣은 '레몬 로마노'나 생민트, 우유 슬러시, 에스프레소가 어우러진 '카페 하이드' 등 무슈부부만의 특별한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다. 맛이 궁금한 커피를 한 잔씩 시키다 보면 어느새 잔뜩 쌓인 빈 잔을 발견하게 될 것.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편하게 둘러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3길 77-10 영업시간 화~일요일 12:00~21:00,
월요일 휴업 문의 @monsieurbubu.coffeeand



카페 프로즌
쿠바 대표 칵테일인 프로즌 다이키리의 레시피에서 영감을 받은 에스프레소를 넣은 메뉴. 생레몬 라임즙에 설탕 시럽을 넣고 에스프레소 슬러시를 더했다. 커피 고유의 향과 시원한 과육이 어우러진다.

에스프레소 쇼콜라

초콜릿 안에 에스프레소 원액이 담긴 페레로 로세 포켓 커피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메뉴.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신 뒤 크림과 초콜릿을 녹여 먹으면 달콤쌔싸름한 기분 좋은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



YM 에스프레소 룸

영롱한 스테인드글라스 창을 바라보며 기다란 예뻐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에스프레소 바, 'YM 에스프레소 룸'. 유럽에서 배낭여행을 하다 지칠 때면 성당에서 잠시 쉬던 대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이라는 여행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기획한 공간이다. 창살 너머 드리우는 햇살과 커다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웅장한 음악이 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곳에서는 직접 로스팅한 다섯 종류의 원두로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콘파냐', '커피 그라나다' 등의 메뉴를 선보인다. 부드럽고 달콤한 크림이 매력적인 '카페 비엔냐'도 이곳의 인기 메뉴다. **D**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관로 43-9 래미안 909동 1층 상가 101호
영업시간 매일 09:00~22:00 문의 070-7757-0829

#24시간커버글로우
#촉촉한쿠션
#무결점피부



@bomnal_day

요즘 내 가방 속에 항상 들어 있는 헤라 UV 미스트 쿠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벤더 컬러에 놀라운 커버력과 촉촉함까지 다가왔다.



@soohyejjang

내가 딱 좋아하는 수분 가득 머금은, 피부가 좋아 보이는 쿠션! 디자인도 영롱해.



◀ 헤라 UV 미스트 쿠션 SPF50+/
PA+++ 피부가 빛을 머금은 듯 고급스러운 윤기와 들뜨지 않는 밀착력, 한 번만 발라도 피부 톤, 주름, 다크 스팟, 모공까지 가려주는 강력한 커버력이 장점이다. 15g×2,6만원.

생생한 제품 평가

헤라 UV 미스트 쿠션을 체험해본 품평단 10인의 솔직한 소감.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LEE MI KYUNG

@minjjang0810

외출 전 UV 미스트 쿠션으로 마무리하고 거울을 보면 내 민낯이 겨울 속처럼 촉촉하고 잡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촉촉한 건 기본이고 한 번만 톡톡 바르면 24시간 하루 종일 끄떡없어요.



@aripoo7

헤라 UV 미스트 쿠션이 처음 나왔을 때 써보고 신세계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 뒤로도 계속 더 좋아지니 행복해요. 촉촉한 쿠션으로 오랫동안 결점 없이 빛나는 피부를 연출해주는 24시간 커버 글로우 아이템!



@black_mhk

윤기와 밀착력, 커버력을 모두 잡은 헤라 UV 미스트 쿠션. 결 따라 촘촘히 빛나는 리치 글로우가 짝이에요.



@stella.look

여행 하면서 챙긴 헤라 UV 미스트 쿠션, 언제 써도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편하게 톡톡 두들기기 좋아 애용해요. 다 같이 맞지, 헤라 쿠션 항상 좋았지, 고덕고덕하는 중.



@_ecaille_

촉촉함과 커버력, 둘 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헤라 UV 미스트 쿠션 하나면 된다고! 가을, 겨울에는 매트한 것보다 적당히 촉촉하면서 오래가는 쿠션이 최고. 중간중간 커버 업 하지 않아도 메이크업이 오래 유지돼 좋아요.



@nnvery

촉촉 끝판왕인 헤라 UV 미스트 쿠션. 아침에 바르고 나가면 하루 종일 유지도 잘되고 피부가 원래 엄청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게 특징. 특히 겨울철에는 아무리 스킨케어를 촉촉하게 해도 컴팩트를 바르면 건조해져서 얼굴이 땅길 때가 있는데 오건 촉촉한 리치 글로우 피부가 유지돼요.



@_zyyoung

제일 좋아하는 컬러의 케이스라 넘 예쁘다. 베이스는 쿠션 컴팩트만 쓰는 나에게 딱인 헤라 UV 미스트 쿠션.



@happening101

피부 화상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가느냐, 얼마나 내 피부처럼 자연스러운가! 아무리 마스크를 하더라도 먹을 때는 얼굴 공개! 헤라 UV 미스트 쿠션으로 사르르, 촉촉하게 커버되고 답답하지 않아서 더 좋아요.



다른 얼굴을 한 아름다움

‘아름다워’, ‘멋있다’라고 탄복하게 하는 여성상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TV 화면을 점령한 다양한 여성들의 얼굴에서 그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writer AN DONG SUN

유튜브 검색창에 하루에도 몇 번씩 ‘스우파’를 검색한다. 스트리트 댄스 신의 크루들이 출연해 춤 대결을 펼친 Mnet의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는 울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최고의 화제였다. <스우파> 레전드 배틀 몰아 보기,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든 <스우파> 킬포’ 등 이미 본 영상들이 볼 때마다 처음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한 이유는 ‘매력 만점 <스우파> 언니들’ 때문이다. 시작은 댄스 크루 YGX의 리더 리정이었다. 단호하면서도 여유로운 말투, 온몸으로 발산하는 자신감, 대체 불가한 파워에 반했다. 그다음엔 모니카였다. 지적이고 매니시한 분위기, 서늘한 카리스마, 독보적인 댄스 스타일. 그다음엔 이세상 힙이 아닌 아이키, 꿀 떨어지는 매력 허니제이, 악마의 스타성 가비... 저마다 다른 몸과 춤의 세계를 가진 여성들이 펼쳐내는 다채로운 재능의 격전을 보고 있으면 내 몸과 마음도 펄펄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 전에는 드라마 <인간실격>에 폭 빠져 있었다. 영화 <봄날은 간다>를 만든 허진호 감독이 공동 연출로 참여한 이 드라마는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희망의 부재를 맞닥뜨린 남자와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상실감에 허우적대는 여자가 서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이야기였다. 손살같이 달려가는 요즘 드라마들에 비해 무겁고 느린 전개, 시종 슬픈 분위기에 이야기 몰입할 수 있게 해준 건 주인공을 맡은 류준열과 전도연의 연기였다. 그 덕분에 올해 최고의 드라마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전도연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다. 수년 전 그녀가 드라마 <굿 와이프>를 막

끝낸 무렵 인터뷰하게 됐는데, 자료를 조사하면서 내가 그동안 전도연이 나온 작품을 단 한 편도 빼놓지 않고 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 인터뷰에서 전도연은 연기, 즉 일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방으로 열린 길’이라고 정의했다. 일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준다. 미완성, 언제나 발전 중인 채로 살아가는 나 자신 말이다. 취재하고 글을 쓰거나 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 나는 지난 20년 동안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이 일이 쉬워졌다고 느낀 적이 없다. 새하얀 워드 파일을 앞에 두고 매번 처음 겪는 것처럼 괴로워한다. 하지만 그래서 이 일이 흥미롭고 나를 계속 발전하게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집안의 여성들 모두 각자 직업을 갖고 있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있고, 그 일을 할 때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여성이겠지요.” 마막에 있는 미술관 스페이스 K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경계에 핀 꽃> 개막을 기념해 한국을 찾은 독일 아티스트 로사 로이가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 전시는 그녀가 남편이자 신 라이프치히 학파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네오 라우흐와 함께 주최하는 2인전이다. 꿈과 역사, 혼재된 내러티브, 환상을 넘나드는 로사 로이의 모든 그림에는 여자들이 등장한다. 그녀들은 확신에 차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행위인지 알 길 없어 물음표를 띄우며 하염없이 보게 된다. 노란색 점프슈트에 빨간 부츠를 신은 쌍둥이 같은 두 여자가 칠판에 그려진 아리송한 기호를 가리키기도 하고, 구름에 앉은 커다란 여인의 빨간 드

레스를 짓기도 하며, 여자들이 치마를 걷어 올리고 신나게 물고기를 잡기도 한다. 그녀들의 자신만만하고 자아도취적인 표정이 너무 좋다. <스우파>의 파이팅 넘치는 여자들과 포개지는 듯도 하고, 로사 로이의 작품 속 화면을 지배하는 주제적인 여성들은 양성평등이라는 모토를 대변한다. “그려야 할 이유가 있는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성 그리고 여성성은 지난 세기 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특별한 수수께끼고, 나는 이것을 교정할 입장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사 로이는 그림이라는 일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옹골케 표현하고 있다. 미술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 내가 주로 영향을 받는 여자들은 대개 아티스트다. 그녀들이 자신의 작품 세계를 전개해나가는 방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시하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다. 2020년 12월 초부터 이듬해 봄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 영국 작가 로즈 와일리는 1934년생으로 올해 86세다. 스물한 살에 결혼해 오랜 세월 가정주부로 살다가 나이가 선이 다 되어서야 작가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70대에 ‘고령의 신진 작가’로 떠올랐다. 우리가 마땅히 주목해야 할 여성 작가들에 대한 미술계의 뒤늦은 조명이 활발한 가운데 2017년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을 계기로 부상한 로즈 와일리.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나 신문과 TV에서 본 다양한 소재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린다. 레드카펫에 선 니콜 키드먼, 세레나 윌리엄스나 손흥민 등 경외하는 스포츠 스타,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정

설화수 ‘아름다움은 자란다’
‘아름다움은 자란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생애 모든 순간에 본인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설화수의 브랜드 철학을 전파하는 캠페인이다.

치적 인물까지 밑바탕을 처리하지 않은 대형 캔버스에는 와일리의 필터를 거친 세상만사가 펼쳐진다. 영국 켄트 지방의 조용한 마을에 있는 집 이자 작업실에서 원피스에 운동화를 신고 작업하는 할머니 화가, 화가 이던 남편이 작고하고 딸이 장성한 후 와일리는 작가로서 충실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나이보다 내 그림으로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물감 자국이 두껍게 굳은 신문지 문치와 페인트 통이 수북이 쌓인 로즈 와일리의 아틀리에를 재현한 전시장에서 그녀의 바람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했다. <인간실격>에서 전도연이 연기한 ‘부정’은 인생의 종턱에서 문득 자신이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추운 겨울날 그녀가 버스 정류장에서 아버지를 볼들과 “결국 아무것도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 사는 게 너무 창피해”라고 되뇌며 울던 장면을 보며 나도 모르는 새 눈물이 흘렀다.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더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일말의 힌트를 주는 멋진 여자들, 그녀들이 꾸려가는 삶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이 위로와 로망이 되어준다는 거다. **LD**

안동선(프리랜서 에디터)
15년간 매거진 <코스모폴리탄> <바자> 등에서 피쳐 에디터로 일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현재는 미술과 음식에 관한 글을 주로 쓰고 단행본을 비롯한 인쇄물을 만든다.



이달의 필수템 미리보기

에디터가 간간하게 고른 12월의 강추템.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CHOI HYANG JIN



1. 구달 파리 로즈 품종 EDT 장미 향을 만끽할 수 있는 프루티 플로럴 계열의 향수. 50ml, 15만8천원.
2.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3% 굵은 주름까지 2주 만에 눈에 띄게 개선해주는 고효량 레티놀 에센스. 20ml, 13만원.
3. 설화수 자음생수EX & 자음생유액EX 진세노믹스™가 피부의 근본을 탄탄하게 다져주는 기초 스킨과 에멀전. 각각 150ml, 10만원/125ml, 10만5천원.
4. 헤라 멜라솔브 프로그램 브라이팅닝 세럼 & 크림 헤라만의 독자 성분인 멜라솔브 2X™가 멜라닌을 밀착 방해해 피부 분연의 빛을 깨우는 브라이팅닝 세럼과 크림. 각각 40ml, 10만원/50ml, 9만원.
5. 아모레퍼시픽 트리트먼트 엔자임 클렌징 폼 풍부하고 쫀쫀한 거품이 마일드하게 세안해주는 녹차 프로바이오틱스 클렌징 폼. 120g, 4만2천원.
6. 헤라 UV 미스트 쿠션 SPF50+/PA++++ 고급스러운 윤기와 촉촉함, 강력한 커버까지 고루 갖춘 헤라의 스테디셀링 쿠션. 15g×2, 6만원.



